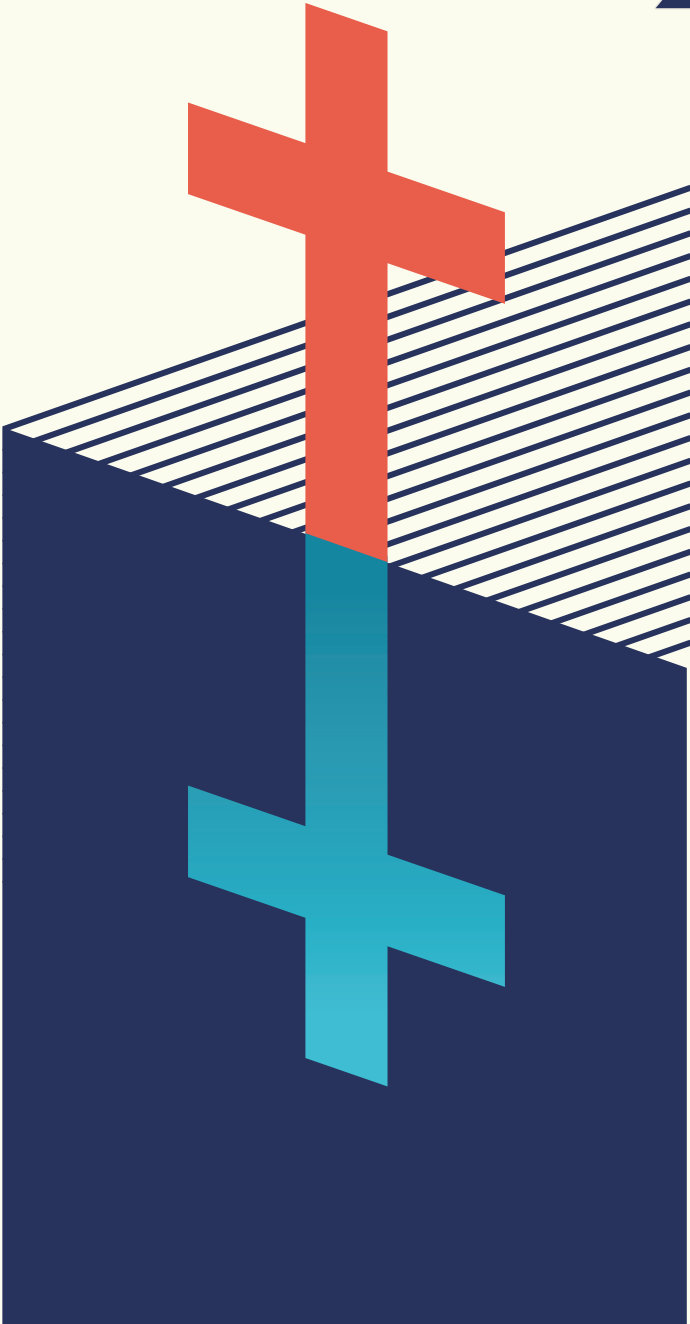


2024년
2월 25일

로마서 강해
갈릴리 공과



셀원들을 환영 - 얼음깨기(Ice-breaking)

1. 셀원들을 통해 격려 받고 칭찬 받고 싶은 것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 봅시다.
2.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소개해봅시다.

| 찬양 -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1.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하소서
2.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하소서

| 대표기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롬 8:26-30)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의 능력, 나의 의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순간부터 우리 내면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죄의 절대적 지배력은 상실되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의 세력이 남아 있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내 마음을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8장에 이르러 우리는 전혀 새로운 희망과 환희의 세계를 맞이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 부활, 생명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롬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 8:15-16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모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합니다. 의무적으로 고난을 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 이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너끈히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롬 8:17-18)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신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없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요 14:16-18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경은 성령님을 보혜사라 부릅니다. <보혜사>는 <돕는 분>이란 뜻입니다. <돕는 다>는 말의 원뜻은 <함께 담당한다>, <맞잡아 준다>는 뜻입니다. 보혜사는 무거운 짐을 질 때 다른 한쪽에서 그 짐을 맞잡아 주어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보혜사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첫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존재 속으로 들어 오셔서 나의 고통, 나의 짐 함께 지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점검 질문

1. 성경은 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롬 8:26-27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인간의 가장 연약한 점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은 정말 무지한 존재입니다. 진짜 무지한 자는 자신의 무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는 자입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무지를 철절하게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니 자신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세요!" 기도가 깊어 가며 하나님과 심정소통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을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빌 바를 알

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내 필요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안내해 주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시립병원 입구에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버려진 채 발견됩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뇌성마비 증세가 있었습니다. 병원은 긴 토론 끝에 얼마 전 은퇴한 메이(May) 라는 간호사에게 이 아이를 위탁하기로 결정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메이 부인은 <아무 조건 없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라며 이 아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2년, 10년, 15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18년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엄지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합니다. 기타줄을 미세하게 튕기는 것입니다. 순간 메이 부인에게 생각 하나가 스칩니다. '그래! 음악이야!' 즉시 아이의 방에 피아노를 들여놓습니다. 전축과 라디오를 번갈아 튕니다. 온통 음악으로 채운 것입니다.

1971년 겨울, 어느 날 새벽 3시! 갑자기 아이의 방에서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 아이의 방으로 뛰어간 부인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아이가 피아노 의자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후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노래까지 부르며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아이와 부인의 이야기를 쓴 기자는 <부인의 믿음과 사랑과 기도가 낳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메이 부인의 헌신 훨씬 이전부터, 기도할수조차 없던 아이의 불쌍한 영혼과 삶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이와 부인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던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 기적을 만들어 내신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대신

아뢰어 주십니다. 내가 힘들어 지치고 쓰러질 때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 주십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기도를 드리면 천사들이 기도를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올려드리고 즉시 하나님은 어전회의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 기도 그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 가장 좋은 열매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아무리 커다란 고난과 아픔을 만날지라도 그 고난의 파도를 넉넉히 헤치며 목적지까지 향해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그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더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문제들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주시는 것입니다.

점검 질문

1.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나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1. 당신이 지쳐서 기도 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악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있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3.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초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얽히고설켜 잘못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얽히고설킨 모든 것들을 마침내 온전하게 풀어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으로 결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가장 온전한 방향으로 결론 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예측 못한 불행 앞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불행조차도 마침내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애굽 노예로 팔려 갑니다. 성실함으로 주인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 왜 고난이 왔을까 불평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가 겪었던 고통의 깊이는 너무 깊었습니다. 억울하고 한 맺힌 것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조차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여러가지 일들이 때로 내게 아픔이고 피하고 싶은 것일 수 있으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사랑이 내재된 하나님의 포괄적 섭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 45:5-8)

창 50:5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누군가가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 어이없는 죄를 짓는다 할

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사건을 선하게 바꾸시고 선하게 사용해 나가십니다.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가운데 놓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점검 질문

1.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인가요?

4. 구원의 과정

롬 8:29-3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 미리 아심 (예지)

엠펙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벌써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협도, 어떤 고통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 미리 정하심 (예정)

예정이란 것은 미리 다 정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며 되돌아보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정하신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으며 드리는 고백입니다.

3) 부르심 (소명)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청지기 인생'이라 부릅니다.

4) 의롭다 하심 (칭의)

5) 영화롭게 하심 (영화)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각각의 단계를 이해하고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첫 순간부터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불

잡아야 할 원칙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구원의 주체도, 내 인생의 주인도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게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오! 죽음도, 절망도, 마귀도,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구원의 여정은 온통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가 바뀌었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오늘로부터 내일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일로부터, 저 먼 마지막 시간으로부터 오늘로 거꾸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압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완성의 날입니다.

넷째,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갈릴리 그리스도 공동체 여러분! 조직도 중요합니다.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데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미움도, 원망도 내려놓고! 직분도, 계급도 내려놓고 예수로 살아갑시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합시다! 예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갑시다!

점검 질문

1.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적용 질문

1.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될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손길이라고 믿고 있나요? 생각나는대로 기록한 후 함께 나누어봅시다.

| 공동체 기도

1. 3월부터 시작되는 사역들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부흥이 있게 하소서.
2.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기도는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며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3. 사순절 기간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Reuben Morgan

C G/B Am⁷ C/G F C

1. 약한 - 나로 강하게 ~가 난한 날 부하게
 2. 내가 - 전너야 할 강 저기서 내 죄 씻겼네
 3. 깊은 -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켰도다

F/G C G/B Am⁷ Dm⁷ G C F/C C

눈 먼 -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 세 -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C/E G/F F Am⁷ C/G F C/E

호 - 산 나 호 - 산 - 나 죽음 당 - 한 어린 양

G/F F Am⁷ C/G G C

호 - 산 나 호 - 산 - 나 예수 - 다 - 시 사셨네

NOTE.

